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99호 【무게 제25077호】 주제 104 (2015)년 10월 26일 (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백두산 영웅청년발전소 완공에 기여한 련관단위 일군들, 근로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완공에 기여한 련관단위 일군들, 근로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로동당 총서기 김정은 동지와 김영호 내각사무장, 리종국 기계공업상, 김용광 금속공업상, 강종관 료해운상, 장혁 철도상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우리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보장사업에서 로력적성과를 이룩

한 공지와 자부심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게 된 영광과 행복으로 하여 참가자들은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휩싸여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촬영장에 도착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 투쟁을 진두에서 이끄시며 주체조선의 위대한 새 승리를 열어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져올리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백옥같은 충정과 애국의 불타는 마음으로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산악 같이 떨쳐나 백두산청년강국의 기상을 힘있게 과시하는데 기여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로력적위훈을 값높이 내세워주시며 최상최대의 영광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삼가 올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고 백두산대국의 자랑스러운 첨출대기념비, 청년강국의 상징인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훌륭히 일떠세우는데 크게 기여한 련관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체 참가자들이 영광의 날에나 시련의 날에나 오직 당을 따라 변함없이 충정의 자욱을 아로새겨온 조선로동계급의 자랑스러운

전용을 이어 앞으로도 우리 당을 경제강국건설의 빛나는 성과로 만들어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뜻깊은 평양견학의 나날을 보내도록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고 선군혁명명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한없는 사랑과 크나큰 믿음과 격려를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백두산대국의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기상을 높이 펼쳐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었다.

본사정치정보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 활동 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18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파스 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350군부대를 시찰하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군인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김정은 동지처럼 많은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키우고 일당백의 싸움꾼으로 준비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 창건 70돐을 높은 흥분성과로 맞이한 군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들을 처하하시었다며 전투력강화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일본의 교도통신과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공화국주제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들, 도이쉴란드만제연단 인터넷홈페이지 《현저지도소식들》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파스 통신은 또한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창건 70돐을 축하하는 공연을 관람하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도자께서는 주체문화예술발전에 크게 이바지해가는 예술인들의 공헌성과를 축하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청봉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앞으로는 천민의 심장을 혁명 열, 투쟁열로 불타게 하는데서 맡겨진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세계잡신문 《더 보팔레트》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창건 70돐을 축하하는 공연을 관람하시었다고 하면서, 모란봉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인민에 대한 어머니당의 사랑과 정이 맥박치고 조선로동당을 따라 영원히 대를 이어 총정다해갈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를 과시하는 훌륭한 공연을 진행하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고 보도하였다.

일본의 통신과 나이지리아, 민주공화국, 도이쉴란드의 인터넷홈페이지들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창건 70돐을 축하하는 공연을 관람하시었다고 보도하였다.

인터넷홈페이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었다.

한편 민주공화국의 인터넷홈페이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창건 70돐을 축하하여 우리 나라를 공식친선방문한 중국공산당대표단을 접견하신 소식을, 나이지리아의 인터넷홈페이지는 이 소식과 함께 사회주의선경마음으로 훌륭히 일떠선 라선시 선봉지구 백학동을 돌아보신 소식을, 만민신문 《더 글로벌 뉴 라이트 오브 만마》는 새로 건조한 종합방송사신 《무지개》호를 돌아보신 소식을 게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의 지휘성원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에 대한 당 및 국가표창과 군사칭호 수여모임 진행

위대한 당을 따라 주체혁명위업의 대로를 승리와 영광의 길로 수놓아가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치신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최후승리의 진군가를 높이 울리고있는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의 지휘성원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당 및 국가표창과 군사칭호 수여하는 모임이 25일에 진행되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 지휘성원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배려하여주시는 당 및 국가표창과 군사칭호 수여하는 모임이 25일에 진행되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명령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의 지휘성원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에 대한 군사칭호 수여모임 진행》을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동지가 정중히 전달하였다.

공훈국가합창단 단장 겸 수석지휘자 장용식에게 육군중장의 군사칭호가 수여된것을 비롯하여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의 지휘성원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한동급이상의 높은 군사칭호가 수여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발령되고 판

현악과 남성합창 《영원히 한길에 가리라》에 김정은 동지 상장과 김정은 동지 상패가 수여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존엄을 모신 시계표창을 박성남, 함혁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표창장을 김은일이 수여받았다.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 지휘성원, 창작가, 예술인, 성원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예칭호와 훈장을 수여함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발령된 다음 인민예술가칭호가 현은철, 장길호, 민병철에게, 인민배우칭호가 문일환, 리준에게, 공훈예술가칭호가 리경덕에게, 공훈배우칭호가 지수원, 정광제, 김유경에게, 국기훈장 제1급이 7명에게, 로명훈장이 23명에게, 국기훈장 제2급이 6명에게, 국기훈장 제3급이 11명에게 수여되었다.

모임에서는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선군혁명명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예술창작창조 사업을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고 오늘은 그 모든 성과를 자기들에게

몰려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었다고 감격에 넘쳐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언제나 심장깊이 간직하고 앞으로도 혁명군가의 음악포성, 노래포성으로 당의 사상과 위업을 맨 앞장에서 받들며 전체 군대와 인민을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한 과감한 투쟁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는 최고사령부의 제일나팔수, 사상전선의 제1선전투원으로서의 사랑과 임무를 다해나갈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이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만을 걸어갈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를 과시하는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형상할으로써 주체의 붉은 당기를 뜻으로 삼고 위대한 미래를 향하여 폭풍쳐나아가는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혁명적기상을 힘있게 펼쳐갈 줄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모임에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드리는 명세문이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당의 령도는 조선청년운동의 생명이며 청년대군의 위력은 당의 령도를 받는데 있습니다.》 김정은

당 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청년중시는 우리 당이 장차 70성상의 로정에서 인민중시, 군대중시와 함께 전략적선으로 뛰어넘어 일관하게 구현해온 중요한 문제이다.

얼마나 많은 당조직들이 절세의 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청년들의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려고 또 지금도 이 사업을 얼마나 혁신적으로, 창조적으로 전개해나가고있는것인가.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고 청년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 큰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있는 안주시당위원회 일꾼들의 사업이 주목된다.

시당위원회에서는 격동적인 현실의 요구에 맞게 청년사업을 당원회화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청년들을 고상한 정신과 미풍을 지닌 시대의 선구자로, 영웅청년신화의 창조자들로 여 세계 키워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각급 당조직들과 청년동맹조직들은 청년운동을 강화하는것은 당을 강화하고 국가를 강화하는 최대의 중대사이며 혁명의 전략적요구라는것을 명심하고 청년들을 당의 후비대, 최후대, 익측부대로 튼튼히 키워으로써 청년강국을 일떠세운 우리 당의 업적을 밀어붙여 빛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청년사업을 당원회화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나가는 이곳 시

안주시당위원회 일꾼들의 사업에서

당원회화의 사업에서 특별히 주목되는것은 시당위원회 일꾼들의 역할문제이다.

빛해진 잘못 살아온 일부 청년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을 때였다.

시당위원회 일꾼들의 어느 한 모임에서 시당책임비서 팀장적동무는 자기 심정을 이렇게 털어놓았다.

문제는 우리 일꾼들이 어찌나 심정으로는 청년들을 바르기로 이끌어주지 못한다. 우리가 그 청년들의 어머니가 되자. 못한 자식을 갖는다는 부모가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 청년들이 이 청년들에게 친부모의 정과 사랑을 주자. ...

그의 절절한 이야기를 들으며 시당위원회 일꾼들은 자책을 금할 수 없었다.

솔직히 청년들을 교양하는 것은 해당 부서나 아예단위 일꾼들의 일로만 생각하면 안된다.

이들 계기로 시당위원회 일꾼들은 청년들을 교양하는 것은 해당 부서나 아예단위 일꾼들의 일로만 생각하면 안된다.

이들 계기로 시당위원회 일꾼들은 청년들을 교양하는 것은 해당 부서나 아예단위 일꾼들의 일로만 생각하면 안된다.

이들 계기로 시당위원회 일꾼들은 청년들을 교양하는 것은 해당 부서나 아예단위 일꾼들의 일로만 생각하면 안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시당위원회에서는 청년교양문제를 주관부서에 맡겨 두지 않고 여러 부서들에서 협동적으로 청년들을 우리 당이 바라는 참된 인간, 선군시대의 훌륭한 젊은이들로 키워나가고 있다.

최근 시당의 청년동맹조직들과 청년들속에서 이루어지고있는 자랑스러운 성과들이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제2차 전국청년미용선구자대회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크나큰 기쁨을 드린 덕성고급중학교 김경애동무를 비롯한 시당의 청년들속에서는 우리 시대의 고상한 미풍의 선구자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배우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과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을 비롯하여 대교건설투쟁들에서 선군청년전위사의 위력을 남김없이 펼쳐가고있는 청년들의 노력적위훈을 다 전할 수 없다.

이곳 시당위원회의 사업은 각급 당조직들이 청년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로 당원회화적인 사업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품을 들이며 청년들을 고상한 미풍을 따라올바라 말려나가는 선군청년전위사 키움으로 청년대군을 일으키는 청년들과 함께 앞으로 후속추진에 노력도 부르고 충도 주면서 청년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었다.

본사기자 채인철

자립성은 어떻게 높아졌는가

당조직들이 청년들의 자립성을 키워주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들은 평양시상하수도관리국 당위원회 사업을 통해서도 다시금 절감하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과 당일꾼들은 청년교양에 항상 머리를 쓰고 품을 들이며 청년동맹조직들의 자립성과 창조성을 높이는데 주의를 기울이고 청년들이 활개 치며 위훈을 세울수 있도록 각급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한 수천원짜리 소개건공사가 제기되었을 때였다. 일꾼들이 한 자리에 모여앉아 공사와 관련하여 당원들과 노동자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업계획을 토론하고 있었다.

이때 당비서 박일동무는 말했다.

《당에서는 오늘 청년들을 강성국가건설의 선봉대, 출전대로 내세워주고있습니다. 우리 단위에서 청년들의 심정을 지켜 이 공사를 그들의 힘으로 하게 합시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비서의 말씀과 함께 청년들의 자립성을 높여주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들은 평양시상하수도관리국 당위원회 사업을 통해서도 다시금 절감하게 된다.

평양시상하수도관리국 당위원회 사업을 놓고

당조직들이 청년들의 자립성을 키워주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들은 평양시상하수도관리국 당위원회 사업을 통해서도 다시금 절감하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과 당일꾼들은 청년교양에 항상 머리를 쓰고 품을 들이며 청년동맹조직들의 자립성과 창조성을 높이는데 주의를 기울이고 청년들이 활개 치며 위훈을 세울수 있도록 각급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한 수천원짜리 소개건공사가 제기되었을 때였다. 일꾼들이 한 자리에 모여앉아 공사와 관련하여 당원들과 노동자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업계획을 토론하고 있었다.

이때 당비서 박일동무는 말했다.

《당에서는 오늘 청년들을 강성국가건설의 선봉대, 출전대로 내세워주고있습니다. 우리 단위에서 청년들의 심정을 지켜 이 공사를 그들의 힘으로 하게 합시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비서의 말씀과 함께 청년들의 자립성을 높여주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들은 평양시상하수도관리국 당위원회 사업을 통해서도 다시금 절감하게 된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전 위원회의 확대 회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제58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5일 예산시에서 진행되었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들과 배우산영웅청년발전소, 북부철강종합처리차, 중앙과 지방의 청년동맹일꾼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제104(2015)년 10월 3일 배우산영웅청년발전소 준공식에서 하신 역사적인 연설과 조선노동당창건 70돐경축연방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서 하신 연설, 볼로로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 김일성동지》의 위업은 밀어붙여야 한다는 강령적과업들을 결사관철할데 대하여 토의하였다.

회의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제104(2015)년 10월 3일 배우산영웅청년발전소 준공식에서 하신 연설문이 정중히 전달되었다.

전용산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역사적인 연설들과 볼로로 고전적로작에는 청년중시사상과 로정을 틀어쥐고 청년들을 우리 당으로 튼튼히 묶어세워 당과 끝까지 운명을 같이하는 혁명의 전위투사로, 배우산청년강국의 주인들로 키우시려는 하는같은 믿음과 사랑이 담겨져있다고 말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연설들과 로작에서 우리 당이 청년

중앙위원회 의 진행

명정신, 백두의 깃발정신을 지닌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투철한 반제국주의의식을 지닌 계급의 전위투사로서 투신했으며, 언제나 갈래 대하여 그들은 말했다.

그들은 모든 청년동맹조직들이 당적책임과 의무를 주신으로 틀어쥐고나가는 당적사업에 대한 혁명적정신과 창조성을 높여줄수 있는 청년대군을 일으키는 청년들과 함께 앞으로 후속추진에 노력도 부르고 충도 주면서 청년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었다.

다음으로 시당위원회의 사업에서 주목되는것은 위원회회의

위 훈의 나 캐

라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

청년들은 사기가 충천했다. 전투장의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여기저기서 용광로불꽃이 튀고 연막작전이 펼쳐져 벌어졌다.

그러는 속에 어딘지 마지막 전투를 벌이는 날이 있었다.

6월 20일 밤, 이제 시간만 남은 날이 시작되는 시각이었다. 대상설비총조립을 위한 마지막 전투가 분초를 다투며 진행되고있었다.

이때 뜻밖의 일이 생겼다. 대

통나무실기에서 련일 혁신

운봉 121호양륙사업소에서

당조직의 지도밑에 사업소일꾼들은 끝없는 열매를 따고 있다. 통나무실기, 통나무실기조직과 지휘를 전담하고 있다. 그리고 이 조직에서 통나무실기, 실기실적은 지난해에 비해 1.2배 높아졌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통나무실기에서 나무를 많이 베는것은 중요하다. 베어놓은 나무를 제대로 다루는것이 더 중요하다.》

가을걷이전투결속으로 힘있게 추동

농업부문의 령도업적단위 당조직들에서

뜻깊은 올해의 농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하여 농업부문의 령도업적단위 당조직들에서 대승을 당한 영농전투에 힘있게 결속하여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발휘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철저히 벌여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리원시 미곡, 통천군 신암, 태천군 은봉, 함주군 통봉령농장들을 여러차례 찾았듯이 이 가을의 불길을 지켜주시고 나라의 농업생산에서 선구자적역할을 수행하도록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언관철을 당사업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당적지도로 당조직들에서는 농업부문에서의 정정신을 총괄함으로써 가을걷이와 낱알떨기물제철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위해서 상상의 포문을 열고 집중포화, 연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대고 있다.

글 및 사진 특약기자 송재웅



총진군속도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자

생산돌격전의 불길높이 자랑찬 위훈을

순천화력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신년사와 공동주요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순천화력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비상한 애국적열의를 안고 전력증산의 불길에 새겨져 지쳐 울리고있다.

뜻깊은 올해의 정초부터 메달 전력생산계획을 빛나게 완수한 이들은 지금 계절조건에 맞게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일별과제를 1.1배이상으로 넘쳐 수행하는 자랑을 펼치고있다.

특히 설비들의 정비보수를 높은 질적수준에서 진행하여 종전보다 가동시간을 1.2배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기술자, 기능공들의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면서 그들의 창조적열의를 불릴수 있도록 하는 기술혁신인들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전바람을 일으키고있다.

연설산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보이러를 철저히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관리운영하면서 배후기와 파열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정비보수를 신속하게 하여 매일 많은 량의 증기를 생산보장하고있다.

라빈직장의 전력생산자들이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탐구동원하여 발전설비들의 만부하를 보장하고있을 때 전기적장의 기능공들은 맡겨진 전력생산과제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고있다. 특히 매달 계획수행에서 남다른 모범을 보이고있는 1교대의 로동자들이 혁신의 앞장에서 많은 초소를 믿음직하게 지켜나가고있다.

발전소로동계급은 현행생산을 보장하는 바쁜 속에서도 수km구간의 취주를 하루사이와 와달간 정리하여 필요한 공업용수를 자제로 더욱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발전소 일군들은 승려자와 대추직장을 비롯한 인민자랑인 공중선의 동음을 힘차게 울려가고있는 3호기와 1호기의 전력증산에, 철관을 비롯하여 내부배비를 최대한 탐구동원하고 자력생성기제를 활성화하여 필요한 용적자재를 장황을 자제로 생산보장하면서 4호기와 2호기대보수를 앞당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선봉부인과 기초공업부문을 주축세우기 위한 결성적인 대책을 세워 석탄, 전력, 금속, 철도운수부문을 확고히 앞세우고 경제각국건설의 도약대를 틀튼히 다져야 합니다.》**

발전소의 일군들은 대중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진취적인 사업태도를 가지고 화신의 기판차가 되어 그들을 새로운 위훈창조로 힘있게 불어일으키고있다. 이들은 해당 단위들과의 면회를 강화하면서 연로보장에 큰 힘을 넣고 가동중에 있는 보이러와 타빈발전기들의 정상운전을 책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발전소의 일군들은 대중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진취적인 사업태도를 가지고 화신의 기판차가 되어 그들을 새로운 위훈창조로 힘있게 불어일으키고있다. 이들은 해당 단위들과의 면회를 강화하면서 연로보장에 큰 힘을 넣고 가동중에 있는 보이러와 타빈발전기들의 정상운전을 책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발전소로동계급은 현행생산을 보장하는 바쁜 속에서도 수km구간의 취주를 하루사이와 와달간 정리하여 필요한 공업용수를 자제로 더욱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발전소 일군들은 승려자와 대추직장을 비롯한 인민자랑인 공중선의 동음을 힘차게 울려가고있는 3호기와 1호기의 전력증산에, 철관을 비롯하여 내부배비를 최대한 탐구동원하고 자력생성기제를 활성화하여 필요한 용적자재를 장황을 자제로 생산보장하면서 4호기와 2호기대보수를 앞당

발전소 일군들은 승려자와 대추직장을 비롯한 인민자랑인 공중선의 동음을 힘차게 울려가고있는 3호기와 1호기의 전력증산에, 철관을 비롯하여 내부배비를 최대한 탐구동원하고 자력생성기제를 활성화하여 필요한 용적자재를 장황을 자제로 생산보장하면서 4호기와 2호기대보수를 앞당

새 기술인구와 노임에

복합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 달려다간 국가과학원 물리학연구소의 연구사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부문에서 최첨단과학을 힘있게 접목발전과 과학발달을,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데는 과학의 연구성과를 많이 내놓아야 합니다.》**

국가과학원 물리학연구소 금속물리연구실의 연구사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와 공동주요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힘있게 수행하면서 연구성과를 많이 내놓아야 한다.

불리한 조건을 역전시킨 대담한 협동작전

함경북도수산물관리국에서 작은 고기배들을 위주로 한 집단어로전으로 성과 확대

지난 어느날 함경북도 앞바다의 먼 수역에 낚시배가 나타났다는 어항등보가 들어왔다. 불리한 어항조건으로 100n mik이 넘는 먼바다에 나가야만 하였다. 큰 고기배들은 거기로 나간 먼바다어장에 진출한 상태여서 한 집단어로전용을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었다.

그에 대한 대중들의 결과는 놀라웠던 것이다. 50여척의 작은 고기배들이 어항등보가 타고있던 먼바다어장에 진출하여 큰 고기배들의 주위에서 현대적인 어군탐색 설비와 기상관측장비를 잘 활용하여 먼바다에서 어군을 찾아냈다.

일군들의 관점과 입장이 중요하다

김덕광업련합기업소 2선광직장에서

적극참여련합기업소 2선광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와 공동주요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자제의 힘과 기술로 현존설비들의 능력을 높여 생산량 증진을 위한 노력에 힘쓰고있다. 이 일인 여간한 편이 드는 사업이 아니었다. 머리를 흔드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전문설계가 내놓은것과 이고 풍부한 경험과 지식에 의거하여 그것을 시작했다가 생산에 지장을 주는 경우엔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누구나 선뜻 밀어주지 않을 때 신심을 안겨주고 적적적적이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달린 자제를 해결해 오고 현장에 자주 나와 그들을 고무해 주면서 새 분급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분급가 제일 난문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불려주고 우리 식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다그치며 일군들보다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활력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혁신이 생산과정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것은 모든 단위에서 높은 생산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우리가 찾아낸 2선광직장의 생산공정현대화사업이 그것을 뚜렷이 증명해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불려주고 우리 식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다그치며 일군들보다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활력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불려주고 우리 식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다그치며 일군들보다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활력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부문에서 최첨단과학을 힘있게 접목발전과 과학발달을,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데는 과학의 연구성과를 많이 내놓아야 합니다.》**

국가과학원 물리학연구소 금속물리연구실의 연구사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와 공동주요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힘있게 수행하면서 연구성과를 많이 내놓아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불려주고 우리 식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다그치며 일군들보다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활력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5돐에 즈음하여

우의탑에 화환 진정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5돐에 즈음하여 25일 우의탑에 화환들이 진정되었다. 우의탑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5돐에 즈음하여 25일 우의탑에 화환들이 진정되었다. 우의탑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5돐에 즈음하여 25일 우의탑에 화환들이 진정되었다. 우의탑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5돐에 즈음하여 25일 우의탑에 화환들이 진정되었다. 우의탑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새로 찾은 100정보 땅의 주인들

평원군에서

새로 조직된 2개의 청년적업반들이 올해농사를 잘 짓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부침표는 적은 우리 나라에서 알곡생산은 늘이지 않는 부침표는 적적 벌려야 합니다.》**

세로 등판의 영원한 청춘으로 살리

우리 당의 후비대가 어떻게 준비되고 혁명의 대가 어떻게 이어지고있는가를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모습이 세로등판에 펼쳐졌다.

우리 당의 후비대가 어떻게 준비되고 혁명의 대가 어떻게 이어지고있는가를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모습이 세로등판에 펼쳐졌다. 당의 현대론 구상을 받들고 여기에 달려나와 대오의 앞장에서 위훈을 떨쳐가던 평양가금업산국총동맹대원 김경희, 외국문물조사원대원 최남혁동무들, 정든 수도 평양에 집을 둔 이들은 세로등판에 영원히 뿌리를 내리고 추산물생산자로 한생을 마칠 날 결심을 다졌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도당위원회에서는 청년작업반원들이 생활에서 자그마한 불편도 느끼지 않게 청년적업반원들을 훌륭히 건설하도록 하였다.

평원군과 순천시의 책임일군들이 건설에 동원된 돌격대원들을 발송하여 청년적업반원들을 사회주의문화농촌의 본보기로 훌륭히 양성하도록 하였다.

새로 조직된 평원군 대동농동농장 청년적업반원들은 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높은 알곡생산성과로 보답한 일념으로 온 힘으로 100정보의 땅에 성실한 땅을 바치겠다고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도당위원회에서는 청년작업반원들이 생활에서 자그마한 불편도 느끼지 않게 청년적업반원들을 훌륭히 건설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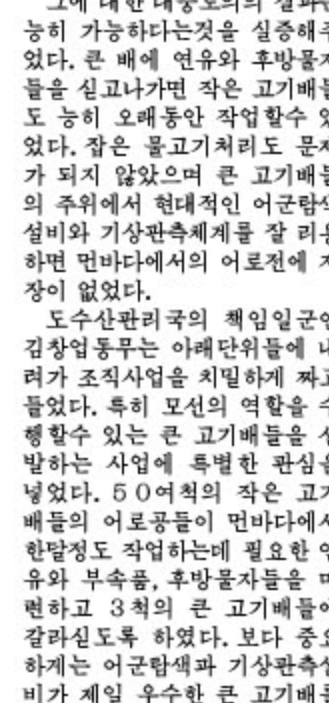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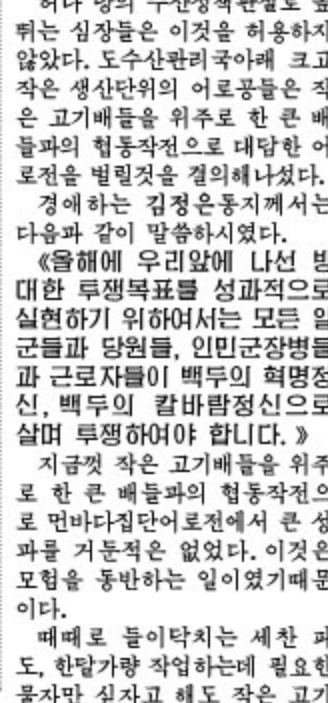
평원군과 순천시의 책임일군들이 건설에 동원된 돌격대원들을 발송하여 청년적업반원들을 사회주의문화농촌의 본보기로 훌륭히 양성하도록 하였다.

새로 조직된 평원군 대동농동농장 청년적업반원들은 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높은 알곡생산성과로 보답한 일념으로 온 힘으로 100정보의 땅에 성실한 땅을 바치겠다고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도당위원회에서는 청년작업반원들이 생활에서 자그마한 불편도 느끼지 않게 청년적업반원들을 훌륭히 건설하도록 하였다.

평원군과 순천시의 책임일군들이 건설에 동원된 돌격대원들을 발송하여 청년적업반원들을 사회주의문화농촌의 본보기로 훌륭히 양성하도록 하였다.

새로 조직된 평원군 대동농동농장 청년적업반원들은 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높은 알곡생산성과로 보답한 일념으로 온 힘으로 100정보의 땅에 성실한 땅을 바치겠다고 하였다.



돌격전의 기수

혁명관공 및 영도연구소

혁명관공 및 영도연구소 소대 소대장 김동원동무는 혁명관공에 제대배상을 준비하는 때로부터 지난 3년동안 석탄생산의 물파루를 솜씨있게 열리게 하는 돌격전의 기수로 소문났다.

다들 걱정하는 기수

소대장 김동원동무는 혁명관공에 제대배상을 준비하는 때로부터

소대장 김동원동무는 혁명관공에 제대배상을 준비하는 때로부터 지난 3년동안 석탄생산의 물파루를 솜씨있게 열리게 하는 돌격전의 기수로 소문났다. 5강분란전쟁도를 복수해야 할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도 김동원동무는 서슴없이 소대가 맡아할 것을 제기했다.

